

도시 문화자원 확보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중소도시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반상철^{1*}

¹서원대학교 조형환경학부 건축학과

A Study on Optimum Level of Exhibition Space for Cultural city focused on the Medium sized-Cities

Sang-Chul Bahn^{1*}

¹Dept. of Architecture, School of Design & Environmental Science, Seowon University

요 약 현대도시에서 문화공간은 곧 도시생활의 중심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공간은 삶의 질을 높이고, 가치의 폭을 넓히는 거점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공간이 대도시 지역에 집중된 현실은 문화적 수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의 기능적, 공간적인 중심인 중소도시에 문화공간과 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그 확보의 적정수준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현황을 분석하고 선진사례의 비교분석을 기반으로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적정한 확보의 수준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Abstract In Modern Cities, The 'Cultural spaces or facilities' are the core of the urban activity. And it is the field of urban life which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change the human's life style. Also in Contemporary society, Cultural spaces are required to express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activity of the city life and the diversity and function of human beings.

But most of them are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In these days, the needs of cultural spaces and facilities in 'Medium sized-cities' are growing. And many development plans are working in practice in that cities to accede to these requirements of social, human and current of the times. They include the exhibition spaces which perform function of the field of art and culture, that have powerful and infinite potentiality of the social development. At this Point, this study suggest that 'Optimum level' of exhibition spaces as Museum and Art-gallery in Medium sized-cities. To achieve this study, two phases are proceeded as follows. First, Check the social needs of it based on theoretical inquiry of Exhibition space. Second, Focused on Medium sized-cities,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12 Domestic cities and 4 Japan's cities. A population of their cities is from 500,000 to 1,000,000. We can get a data for Optimum level of Exhibition space. And last, Suggest the strategies of the location and planning of Exhibition space based on Second phase.

Key Words : Cultural Spaces & facilities, Exhibition Space, Medium-sized cities, Optimum level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도시의 세기’인 21세기에서 ‘문화’는 도시 활성화의

중심자원으로 그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미래자원으로서의 문화는 우리의 삶 속에 밀착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주변에 문화공간과 문화시설이 적절히 갖추어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orresponding Author : Sang-Chul Bahn

Tel: +82-43-299-8785 email: gahwoon@seowon.ac.kr

접수일 12년 08월 28일

수정일 (1차 12년 09월 20일, 2차 12년 10월 04일)

게재확정일 12년 10월 11일

그 동안 1980년대 중반까지의 경제적 성장으로 생활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 인구수와 밀도 그리고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문화 및 여가 분야에서 폭발적인 수요확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은 문화와 여가를 ‘생활 방식-Life Style’의 측면에서 중시하기 시작하였고 문화적 생활에 대한 욕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즉,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정신적인 측면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욕구를 만족시켜줄 물리적인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8]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날 시민의 적극적 문화예술 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의 확보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물리적 공간 확보에 대한 기초에 토대를 둔 ‘도심재생’ 방안과 문화도시로서 각 도시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의 건축계획관련 자료는 전시공간의 적정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연구가 대부분 계획에 적용하기 곤란한 오래된 데이터여서 시대에 부응하는 기준의 수립과 적용이 필요하고 시급한 시점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의 물리적인 적정한 수준과 이를 확보·설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전시공간의 정의 및 유형 이해를 통해 현대도시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문헌자료를 통해 알아보고, 실증 연구를 위해 국내 전시공간과 일본 전시공간의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 그 필요성의 확인과 함께 규모기준에 대한 기초 자료를 도출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시공간의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하고, 유형 및 분류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며 전시공간의 도시적, 사회적 필요성을 모색해 보았으며,

둘째, 국내와 일본 현황에 대한 사례를 조사·분석·비교하여 전시공간의 적정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문화 도시조성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과 수준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의 적용을 위해 대상의 범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첫째, 비교연구를 위한 대상도시들의 선정에는 도시의 발전과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인구규모 50~100만의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의 총 12개 도시(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안양, 전주,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를 선정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로서는 문화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도

시규모가 유사하며 인구규모 50~100만의 4개 도시(오카야마, 구마모토, 가고시마, 마쓰야마)를 대상으로 하였고, 문화행위별 문화공간 중에서 문화도시의 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에서 볼 때, 이용자에게 친숙하며 이용도가 높고 객관적인 통계를 통한 방안의 모색이 용이한 전시공간인 박물관, 미술관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전시공간의 확보수준을 바탕으로 문화가 기반이 되어 도시의 미래경쟁력 확보와 연계되는 개발과 전시공간의 조성방안, 더불어 지역성에 의한 조성방안을 제시할 요소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황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국내 전시공간의 확보방안과 수준의 범위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2. 도시 내 전시공간의 역할

2.1 시대적 역할

현대화된 전시공간은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시물과 전시방법 등에 따라 전시공간의 조성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근래 들어 이러한 전시공간의 동향을 크게 8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을 보면, 첫 번째, 유연성(flexible) 있는 공간으로 모든 전시대상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요구하며, 두 번째, 화이트 큐브(white cube)로서 전시작품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식과 색상을 적극 배제한 공간이 필요하고, 세 번째, 워크샵(workshop)적인 공간으로서 여기에서 생활과 풍토가 결합되고 작가와 관람자가 참여하게 된다. 네 번째, 고유의 공간, 전시물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다섯 번째, 장소에 뿌리를 내린 공간으로 실물지향의 전시와 집결력을 고려한 매력적인 전시공간으로서의 장소적 고유성을 부여하며, 반복 참여횟수를 늘리도록 한다. 여섯 번째, 재생의 공간을 도시의 재산으로서 오래 존속시키고자 하며, 일곱 번째, 가설적인 공간=시간 속의 전시는 전시기간과 시기가 그 시대의 경향 등에 부응하도록 하여 더욱 강력하게 장소성에 호소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로서 전세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다양한 정보와 교류하는 것 등이다.[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른 전시물 중심, 참여형, 지역문화 자원화, 디지털 네트워크화 등의 동향을 가진 전시공간들 중 주로 건축물 내에서 전시기능이 행해지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2.2 사회적 역할

문화를 기반으로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는 ‘도시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그 기반인 문화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문화공간의 확보와 조성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전시공간인 박물관, 미술관을 통계적으로 파악한 결과, 전국에 총 807개소로 조사되었다. 이 전체 개소 중에서 서울지역의 전시공간이 243 개소로서, 이는 전국적인 분포로 보아 약 30%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기일원의 수도권을 합치면, 더 큰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5] 이는 전시공간 외의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로 모든 문화공간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시공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의 의미는 인간과 사회, 즉 전시공간에서 다양한 행위를 표현하며, 그것에 반응하게 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하고 확장된 이해를 통하여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따라서 ‘문화적인 영역은 바로 이러한 인간 활동의 중심에 있다.’[6]라는 점에서 볼 때 전시공간을 포함한 문화공간 분포의 편중현상은 현재 사회적·지역적 불균형의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공간의 범주에 포함되는 전시공간은 도심공동화 시대에 도시와 도심기능의 활성화에 기반이 되어 도시를 재생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경제 활성화와 문화 환경의 질적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며, 이러한 문화공간은 궁극적으로 도시민의 정신적, 문화적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2.3 공간적 역할

전시공간의 역할은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수집·조사·연구하고 분류·기록·보존하며, 전시·출판·교육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시공간은 사회적 소산물이기 때문에 사회·경제·문화·교육·후생·복지 등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생활과 밀접한 전시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또한 변화와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시공간은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그 운영방식과 활동형태가 다양하다. 그 유형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이 있는데, 작가의 창작 의욕고취와 예술인구 저변확대, 국제교류전을 통한 세계 문화예술의 흐름을 국내에 소개하는 기획전과 대관 전시로 다양한 분야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 언론사와 단체 소속의 갤러리는 자체 문화사업의 방편으로서 기획전과 대관전 형태를 띠고 있으며,

세 번째, 개인이 운영하는 전시관 중의 미술관은 순수 미술을 주로 기획하는 미술관과 회원제를 구성하여 회원의 교육과 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술관도 있다.

네 번째, 박물관의 경우에도 전시물과 테마에 따라, 그리고 박물관 운영자의 철학과 방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전시장이 조성되고 있다.

3. 국내외 전시공간의 현황 분석

3.1 국내 전시공간 현황

3.1.1 선정조건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의 전시공간 현황 비교를 통해 그 사회적 수준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가장 활발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보이는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인접도시를 제외한 안산시, 전주시, 창원시, 포항시와 청주시는 도시 면적에 비해 전시공간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범주에 들어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속해 있는 위성도시들로서 서울·인천 등 대도시의 베드타운이나 기능지원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런 도시들은 규모가 크나 문화 등 주요기능들은 대도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비교가 곤란한 점을 가지고 있다.

3.1.2 현황 비교

도시와 시대 그리고 규모별로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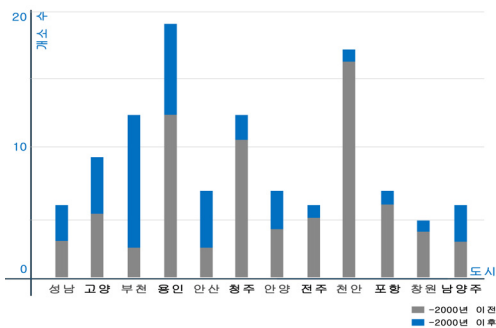
첫 번째, 도시별·시대별 전시공간의 수를 비교해 보면, 조사된 통계수치를 토대로 현재 용인시가 19개소로 가장 많은 전시공간을 갖고 있으며, 공립보다는 사립과 대학의 전시공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천안시가 17개소의 전시공간을 갖고 있으며, 공립과 사립의 수보다는 지역 여건상 천안시에 집중되어 있는 대학교로 인하여 많은 부속 전시공간을 갖고 있다. 부천시와 청주시는 각각 12개소를 갖고 있고, 인구규모 50~100만명의 12개의 도시 중 3번째에 속해 있으며, 부천시는 공립의 수가 많지만 청주시는 공립, 사립, 대학의 전시공간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인구 50-100만 도시의 전시공간 현황
[Table 1] Exhibition Facilities in Medium-sized Cities

시	인구 (천명)	면적 (km ²)	박물관				미술관			
			국공 립	사립	대학	계	국공 립	사립	대학	계
성남시	954	141.74	2	-	2	4	-	-	2	2
고양시	925	267.36	1	4	2	7	-	1	1	2
부천시	864	53.44	9	1	1	11	-	-	1	1
용인시	800	591.32	1	7	5	13	-	4	2	6
안산시	705	148.05	2	-	2	4	1	-	2	3
청주시	641	153.45	4	1	2	7	1	2	2	5
안양시	624	58.47	1	-	3	4	-	-	3	3
전주시	624	206.21	2	1	3	6	-	-	-	0
천안시	535	636.21	2	2	6	10	-	1	6	7
포항시	506	1,127.88	2	1	2	5	-	-	2	2
창원시	504	292.72	1	-	1	2	1	1	1	3
남양주	506	506.19	1	3	-	4	-	2	-	2
평균	682.33	348.59	2.33	1.67	2.42	6.42	0.25	1.00	1.83	3.00

[표 2] 년도 별 각 시의 전시공간 개관 수
[Table 2] Annual Exhibition Facilities

시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	02년	04년	06년	08년	계
성남시	2	0	1	0	0	0	3	0	6
고양시	0	0	5	0	1	3	0	0	9
부천시	2	0	0	4	0	4	2	0	12
용인시	2	4	6	2	0	3	0	2	19
안산시	2	0	0	0	3	0	2	0	7
청주시	2	3	5	1	0	0	1	0	12
안양시	0	0	4	0	0	1	2	0	7
전주시	2	1	2	0	1	0	0	0	6
천안시	4	4	8	0	0	1	0	0	17
포항시	0	4	2	0	0	1	0	0	7
창원시	1	2	1	0	0	1	0	0	5
남양주시	0	1	2	1	0	1	1	0	6
평균	1.42	1.58	3.00	0.67	0.42	1.25	0.92	0.17	9.42



[그림 1] 년도별 각시의 전시공간 개관 수
[Fig. 1] Compare with Exhibition spaces each Cities

또한 연도별로는 전체 도시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1990년대에 약 두 배 정도의 개관을 하였고, 2004년까지 급속한 증가를 보이다가 2006년에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개관수가 현저히 줄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주, 전주, 천안, 포항, 창원시는 2000년 이후로 1~2 개소의 전시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0년대 이전에 개관되었고, 2000년대 이후 타도시의 전시공간 개관 수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현대화된 기능과 공간을 갖추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두 번째, 규모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국내 전시공간 규모 분석에 따르면 각 도시별 전시공간이 최근 문화공간 확충 정책과 환경조성의 결과로 꾸준한 증가를 보여 왔으며, 90년대를 넘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시공간의 증가에 따라 전시면적 또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통계수치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규모 50~100만의 12개 도시의 전시공간 전체 평균 면적은 34,306.8m² 이며, 70년대에서 현재까지 전시공간의 증가 추이는 성남시가 최근 2000년대에 72,011m²로 가장 큰 증가를 보여 전체 규모 77,990m²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3] 년도 별 전시공간의 시설 면적 비교
[Table 3] Compare with the Areas of Spaces

구 분	전시공간(실) 면적 단위:m ²									
	시	연대	개소	전시실	수장고	연구실	세미나	자료	기타	계
성남시	70	2	-	-	-	-	-	-	-	0
	80	0	-	-	-	-	-	-	-	0
	90	1	832	119	-	3412	1222	394	5,979	
	현재	3	765	161	-	-	50	71035	72,011	
	계	6	1,597	280	0	3,412	1,272	71,429	77,990	
고양시	70	0	-	-	-	-	-	-	-	0
	80	0	-	-	-	-	-	-	-	0
	90	5	937	69	27	71	89	6,731	7,924	
	현재	4	2,696	334	139	258	140	1,104	4,671	
	계	9	3,633	403	166	329	229	7,835	12,595	
부천시	70	2	-	-	-	-	-	-	-	0
	80	0	-	-	-	-	-	-	-	0
	90	0	-	-	-	-	-	-	-	0
	현재	10	6,437	301	80	995	376	3,201	11,390	
	계	12	6,437	301	80	995	376	3,201	11,390	
용인시	70	2	1,385	806	94	-	879	558	3,722	
	80	4	2,195	3,361	-	-	532	67,532	73,620	
	90	6	13,916	2,959	583	896	525	9,252	28,131	
	현재	7	4,603	659	190	86	803	11,058	17,399	
	계	19	22,461	4,405	867	982	2,739	88,400	122,872	
안산시	70	2	-	-	-	-	-	-	-	0
	80	0	-	-	-	-	-	-	-	0
	90	0	-	-	-	-	-	-	-	0
	현재	5	3,433	855	47	740	234	2,547	7,856	
	계	7	3,433	855	47	740	234	2,547	7,856	

구분	전시공간(실) 면적 단위:㎡								
	연대	개소	전시실	수장고	연구실	세미나	자료	기타	계
청주시	70	2	1,930	559	143	63	242	607	3,544
	80	3	2,382	1,636	-	1,724	683	4,061	10,486
	90	5	1,625	198	66	704	33	2,242	4,868
	현재	2	2,920	369	66	107	35	5,027	8,524
	계	12	8,857	2,762	275	2,598	993	11,937	27,422
안양시	70	0	-	-	-	-	-	-	0
	80	0	-	-	-	-	-	-	0
	90	4	-	-	-	-	-	-	0
	현재	3	836	228	73	122	28	6,702	7,989
	계	7	836	228	73	122	28	6,702	7,989
전주시	70	2	777	347	132	-	37	384	1,677
	80	1	735	86	64	132	48	646	1,711
	90	2	4,116	1,448	377	1,067	374	6,849	14,231
	현재	1	641	113	-	198	-	1,290	2,242
	계	6	6,269	1,994	573	1,397	459	9,169	19,861
천안시	70	4	-	-	-	-	-	-	0
	80	4	24,412	1,506	372	569	252	26,492	53,603
	90	8	681	42	-	-	46	4,313	5,082
	현재	1	326	128	-	-	13	75	542
	계	17	25,419	1,676	372	569	311	30,880	59,227
포항시	70	0	-	-	-	-	-	-	0
	80	4	3,117	699	20	162	70	17,914	21,982
	90	2	-	-	-	-	-	-	0
	현재	1	1,333	118	-	148	36	2,101	3,736
	계	7	4,450	817	20	310	106	20,015	25,718
창원시	70	1	412	50	-	-	-	29	491
	80	2	-	-	-	-	-	-	0
	90	1	2,640	789	75	-	158	1,329	4,991
	현재	1	436	100	70	-	66	769	1,441
	계	5	3,488	939	145	0	224	2,127	6,923
남양주시	70	0	-	-	-	-	-	-	0
	80	1	234	-	-	173	-	320	727
	90	2	494	203	30	66	13	27,669	28,475
	현재	3	1,541	534	71	200	146	144	2,636
	계	6	2,269	737	101	439	159	28,133	31,838
도시별 평균		9,222.2	1,706.1	283	1,085.7	810.5	19,146.7	34,306.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3-2009년에 방행된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의 현황조사 내용(재정리)

전체 도시 중에서 용인시의 경우 전시공간 규모가 122,872㎡로 가장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성남시 77,990㎡, 다음으로 천안시가 59,227㎡의 면적으로 나타났지만, 개소 수에서 세 번째로 많았던 부천시와 청주시의 전시공간은 6개소를 보유한 성남시에 비해 각각 66,000㎡, 50,568㎡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표 4]는 국내 연구대상인 12개 중소도시의 전시공간 평균면적(34,306.8㎡)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9개 도시들로 추가 확보해야하는 전시공간 면적이 창원시는 27,384㎡, 전체면적의 400%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산 26,451㎡:338%, 안양 26,318㎡:330%, 부천 22,917㎡:200%, 고양 21,712㎡:170%, 전주 14,446㎡:70%, 포항 8,589㎡:35%, 청주 6,885㎡:25%, 남양주시 2,469㎡:8%의 순으로 도시별 각각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국내 중소도

시의 전시공간 규모가 도시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역별·도시별로 적정분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표 4] 국내 사례분석에 의한 추가 필요면적
[Table 4] Required Additional Areas at Domestic Cities by Analysis

해당 도시 및 추가 필요면적 단위:㎡								
창원시	안산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전주시	포항시	청주시	남양주시
27,384	26,451	26,318	22,917	21,712	14,446	8,589	6,885	2,469
전체 면적에서의 비율 (%)								
400%	338%	330%	200%	170%	70%	35%	25%	8%

3.2 일본 전시공간 현황

3.2.1 선정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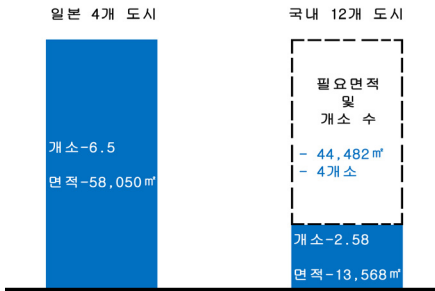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도시 별 지역별 인구와 면적이 유사한 곳이 많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화공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우리나라에 비해 30년이나 앞서서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문화공간의 분류 및 기능에 대해서도 세분화 하였기에 한국의 도시별·지역별 문화공간 및 전시공간 발전 정도에 대한 척도가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본다.

3.2.2 전시공간 현황

200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의 박물관은 3,492개소로 전체 인구 13,00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관 당 3.7만 명으로 나눌 수 있고, 이에 비해 한국은 438개소로 전체 인구 4,800만 명을 기준으로 1관 당 11만 명의 박물관수를 가지고 있다.[9]일본의 미술관 현황은 국·공·사립의 미술관의 총 수는 약 800개관으로 그 중 340개관(42%)은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관동지방에 모여 있는 데에 있어 우리나라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 한 때 '미술관 붐'이라 불리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지만 1990년 후반의 버블 붕괴로 일본경제의 성장은 급속도로 쇠퇴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위에서 활발한 시도가 축소되어 예산의 감소가 원인이 되었다. 전시공간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작품의 구입 예산이 감소하고 지금은 예산액 제로라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곳도 적지 않다. [11]이는 일본이 자랑하는 아트폴리스인 구마모토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2.3 현황 비교

일본의 경우도 한국 도시선정과 같은 조건인 인구규모 50~100만명의 일본 총 14개 도시 중에서 국내 비교 도시들과 문화적 수준 및 인구대비 견줄만한 도시로써 오카야마, 구마모토, 가고시마, 마쓰야마 이렇게 4개의 시를 조사하였고, 객관적인 수치 비교를 위해 복합적인 용도의 대학교 박물관 및 전시장과 사립을 제외한 국·공립 전시공간으로만 비교하였다.



[그림 2] 한·일 국·공립 전시공간
[Fig. 2] Compare with Korean and Japan Public Exhibition space

[표 5] 일본 도시의 규모 및 국·공립 전시공간
[Table 5] Japan Public Exhibition space & facilities

도시	규모		전시공간 개소			십만명당 전시공간 수
	인구	면적km²	박물관	미술관	계	
오카야마	700.64	789.91	6	3	9	1.28
구마모토	670.01	266.26	5	2	7	1.04
가고시마	603.15	547	1	4	5	0.83
마쓰야마	514.94	429.03	4	2	6	1.16
일본 평균치	622.50	225.8	3.75	2.75	6.5	1.8
국내 평균치	682.33	348.59	2.33	0.25	2.58	0.4

[표 6] 일본 도시의 국·공립 전시공간의 총 면적
[Table 6] Gloss area of Japan Public Exhibition space

구분	전시공간(실) 면적 단위:m²			
	전시	수장고	기타	계
오카야마	23,400	12,600	41,400	77,400
구마모토	18,200	9,800	32,200	60,200
가고시마	13,000	7,000	23,000	43,000
마쓰야마	15,600	8,400	27,600	51,600
일본 평균치	17,550	9,450	31,050	58,050
국내 평균치	2,540.5	649.4	10,377.8	13,568

위의 [표 5]에 따라 국내 비교대상 도시 전시공간의 평균개소가 2.58개로 일본의 6.5개에 비해 약 4개소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십만명당 전시공간의 수도 국내가 0.4개인 것에 비해 일본이 4.5배나 많은 1.8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전시공간의 평균규모(표6)는 일본이 58,050m², 한국은 13,568m²으로 확보하고 있어 약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을 통한 국내의 상황은 시설의 수적인 측면과 규모에서 문화선진도시로의 준비가 많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대학 및 사립 전시공간을 제외한 비교로 일본의 대학 및 사립 전시공간이 꾸준한 조성정책으로 인하여 국·공립 전시공간의 규모 및 개소 수 이상으로 산재해있는 것을 감안 한다면 전체 전시공간 수준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4. 전시공간의 확보방안

4.1 적정 확보 수준 설정방안

본 장에서는 전시공간의 적정 확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장의 사례분석에 의한 결과와 함께, 전시공간의 확보기준 설정에 있어 입지 여건 및 설정 조건 등의 전략과 정책적 제안을 통해 문화공간 및 전시공간의 적정한 설치 환경 및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전시공간의 규모산정 지표체계화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과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10]이 있을 것이다. 각각의 방안을 검토해 보면,

4.1.1 규모사례의 분석

전시공간의 특성·인구규모와 같은 지역적인 상황과 사회문화 및 전시유형과 특성에 따라 각 박물관마다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기존의 유사 사례분석을 통한 면적 배분비에 대한 분석은 규모 산정 시 적정수준의 면적설정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서 유효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의 틀은 부분별 면적비에 대한 하나의 단일 값이나 최적치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편차 범위의 값으로 제시하여 규모 산정 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지표로써 활용하며 또한 규모선택에 있어서 신축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사 계열과 판의 성격, 지역특성, 자료량, 자료의 종류 등이 비슷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면 규모에 대한 예측의 범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1.2 유추적 해석에 의한 규모산정지표 설정

이 방법은 추출자료의 수집·기증·대출 등에 의한

자료량의 추이, 현 자료보유수량, 전시 자료의 수량, 수입 면적과 전시면적의 관계 등을 통하여 공간의 밀도, 전시 밀도, 수입밀도와 같은 구체적인 규모산정지표를 추정해 대략적 예상규모를 추론해내는데 있어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규모 산정지표이다.

4.1.3 계량적 분석

계량적 분석을 통한 규모산정지표의 추출, 전시공간에서 요구되는 공간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을 바탕으로 각 소요실 별로 소요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단위 면적을 추정해내는 것이다. 여러 가지 특수상황을 고려한 전시유형에 따른 전시모드와 자료특성 분석과 전시공간 자료와 요구시설에 대한 원단위 치수법을 통하여 전시밀도와 수장밀도, 단위공간에 대한 규모산정지표로 이용하는 것이다.

계량적 분석방법의 틀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질 수 있다.

- ① 전시 유형과 전시모드 분석
 - 전시실 면적추정치표
(전시모드분석에 따른 전시밀도×영역별전시 자료 수 = 해당영역의 전시면적)
- ② 시설과 자료의 전시공간유형별 원단위 치수법
 - 기능단위시설면적산정의 지표
(자료의 물품 치수에 따른 공간요건, 전시매체의 크기, 전시자료의 균집조건, 전시매체 등)

4.1.3 자료의 속성 및 특성 파악

자료의 속성 및 특성에 관한 전시공간의 계열과 종류에 따라 수용하고 있는 전시공간 자료에 대한 특성(자료의 크기, 자료의 균집형태, 유형, 전시특성, 자료가 차지하는 공간의 밀도수준 등)을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는 전시공간 있어서 공간의 수준을 파악하여 실제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어 전시공간규모에 접근해 나가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도시를 전제로 한 전시공간의 확보수준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므로 첫 번째 '규모 사례의 분석'의 방법을 통해 기준을 설정하였고, 추후 전시공간의 세분화 및 구체화된 요구에 따라 나머지의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 불확정요인에 대한 우선순위선정의 판단기준 (규모 설정지표)

[Table 7] Index of Scale set-up

분석 방법	분석 내용	규모 지표설정
규모 사례 분석	관의 유형과 종류, 관의 전체면적규모(연면적)전시부문의 면적규모	전시부문 면적배분비율(%)
	전시밀도수준	밀도수준
유추 적	자료 증가추이	자료증가율(%)
	전시자료량 현황 자료	전시자료와 총 보유 자료의 비율
해석	전시면적과 전시자료량	전시밀도와 점당 점유면적
계량 적 분석	전시유형에 따른 전시모드	전시면적=전시모드×자료량
자료 특성 분석	자료의 크기와 체적	평면의 원단위 치수(평면의 단위면적 기준)
	자료의 시지각조건	감상거리에 따른 실폭의 기준 공간의 단면 규모에 대한 기준
	자료의 속성	감상법에 따른 시거리와 방향성에 대한 기준
	전시자료의 균집형태	개별전시와 균집전시 형태에 따른 점당점유면적
	장르별 전시자료 종류	전시자료종류에 따른 전시밀도

출처: 최준혁, 박물관 전시공간의 규모산정을 위한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9호(통권203호), 2005.

4.2 입지여건 및 조성방안

4.2.1 입지여건

이미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구도심을 개발할 때 기존 도시의 형태를 파괴하기 보다는 도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가 가진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 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의 신축과 같은 전면재개발 방식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도심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물리적 환경조건들을 효율적이고 유연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중소규모 중심으로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네트워크화(Networking)하는 방법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 도심에서 방치된 채 남아있는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이러한 건축물들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최근 들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도심이 갖는 물리적 환경을 존중하고 오히려 유류시설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1]

둘째, 도심 전시공간은 도심이 가진 문화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도심의 문화적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심 문화환경의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물리적 요소로서 도심에서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문화시설의 용도로 건립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시설로 변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전시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도심 공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물리적 요소로서 도심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이벤트,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문화네트워크, 도심 내 특정장소에서 관찰되는 사람들의 행위 등과 같은 요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공간 조성계획을 세우게 되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성 후의 활용가치 또한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시공간의 확보를 도심 내 위주로 계획함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문화편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인구밀도와 접근성 등의 측면과 도시 경제적 상황에서 볼 수 있다. 지역의 문화 균형에 의한 도시 발전의 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2.2 입지유형

이에 따른 전시공간의 입지의 유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5]

첫 번째는 도심 입지형으로서, 전시공간의 대부분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전시공간은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대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충분한 대지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대규모 국립문화·전시시설인 경우 그 국가적 대표성과 국가 전체에 대한 영역권을 지향하기 위해서 대부분 수도나 대도시권에 입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접근 용이형으로, 전시공간의 대부분은 주위에 대중교통 시설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많은 전시공간이 국제공항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이는 외국 관광객의 국제적 접근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공공공간 입지형이며, 이는 전시공간의 설립 목적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충분한 대지의 확보와 자연적 요소와의 연계성을 위해 환경이 좋은 교외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시설의 유용성을 가지기 위해 접근성이 양호한 공원 등 도시 공공공간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전시공간의 입지는 크게 도시의 조직 속에 들어와서 도시 건축의 형태를 위하는 것과 전원에서 자연 환경을 그의 주변으로 하는 형태가 있게 되는데, 입지유형을 통해서 향후 도시 내에 조성되는 전시공간의

장소성 및 접근성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3 조성방안

도심 전시공간은 도심이라는 장소가 지니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도심이 갖는 장소성을 토대로 도심 전시공간 조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으로 도심에 조성되는 전시공간은 도심이 갖는 물리적 환경의 맥락을 존중해야 한다. 도심은 오랜 기간 동안 도시가 형성되고 성장해온 중심지로서 도시의 역사성을 간직한 환경요인들이 풍부하며, 이들 중에는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것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시공간들은 일부 그 규모가 방대하여 실제 주변지역과 낮은 연계성을 갖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대도시의 도심 문화공간 및 전시공간은 여러 부대시설을 포함한 복합적 용도의 공간 형태로 입지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대규모 시설들은 대형필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인 가로조직과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가구(block)형태 등 도심이 갖는 독특한 물리적 특징들을 무시한 채 점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요컨대, 도심에 입지하는 문화공간 및 전시공간은 대상지 및 주변 환경의 맥락을 충분히 존중하여 조성되어야 하며, 새롭게 들어서는 시설로 인해 도심의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도심 전시공간은 그 지역이 가진 물리적·비물리적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예술 문화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시민 또는 관광객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심 전시공간은 도심이 지닌 역사성과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고 도심의 문화인프라를 소프트웨어로 활용하게 되므로 문화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도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내 전시공간의 조성방향을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다.[4]

첫째, 도심 내에서 접근성이 좋고 이용률이 높은 곳에 부수적인 전시공간 설치하는 목적시설인접형이 있고, 둘째, 도심 내 위치하는 유휴시설물을 개조하여 재활용하는 휴시설활용형이 있으며, 셋째, 집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기존 도심 문화자원에 대한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문화적 기능을 강화 강화하는 집적지구형이 있고, 넷째, 도심 내 위치하는 외부공공공간을 문화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해 가는 외부공간정비형이 있다.

또한 이러한 각 유형에 적합한 전시공간의 용도, 도시 내 적용 가능한 장소, 조성방법, 계획 시 유의점, 관리 및 운영방법 등이 향후 새롭게 조성되는 전시공간에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공간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의 과정은 문화도시를 목표로 한 전시공간의 적정 확보수준을 연구과제로 한 바, 이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연구이다. 국내 중소도시를 미래의 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전시공간 규모와 개소 수의 확보수준을 국내외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필요 전시공간의 적정 규모와 확보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 국내의 비교대상인 12개 중소도시의 국공립, 사립, 대학 전시공간 평균개소 수는 9.42개로 성남 6개소, 안산 7개소, 안양 7개소, 전주 6개소, 포항 7개소, 창원 5개소, 남양주 6개소로 평균 개소 수 이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주, 전주, 천안, 포항, 창원시는 2000년 이후로 개관한 전시공간이 1~2개소로 대부분 오래된 시설이어서 현대의 문화 수준과 여건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다. 평균 면적 분석에 있어서는 34,306.8㎡으로 성남, 용인, 천안시를 제외한 9개의 도시가 평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내와 일본의 연구대상 4개 도시 국공립 전시공간 비교에 있어서는 평균 6.5개소 수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국내는 약 4개가 적은 2.58개로 분석되었으며, 십만명당 전시공간의 수에서도 국내가 0.4개소로 일본의 사례의 1.8개에 비해 22%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준은 평균면적에서도 일본이 58,050㎡, 국내는 13,568㎡로 44,482㎡가 부족하였으며, 일본에 비해 약 23%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일본사례 비교의 결과는 국공립 전시공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활발한 문화정책으로 인하여 곳곳에 산재해 있는 사립 및 대학 전시공간의 규모 및 개소 수를 모두 감안한다면 전체 전시공간 수준의 차이는 더욱 벌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내의 전시공간 규모 및 개소 수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중소도시의 전시공간 적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국내의 연구대상 도시 수준을 유지하려면 국공립, 사립, 대학 전시공간의 규모에서 가장 적은 면적을 보유한 창원시 27,384㎡로부터 남양주시에 2,469㎡를 포함하여 9개 도시가 면적을 추가 확보해야 하며, 개소 수에서 성남, 남양주, 전주 각각 3개소, 안산, 안양, 포항 각각 2개소, 창원시 4개소를 증가시켜야 하며, ② 일본의 연구대상 도시 수준을 유지하려면 국공립 전시공간에 있어 국내 중소도시는 평균 4개소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전시면적에 있어서는 44,482㎡ 이상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전시공간의 밀도와 전시물의 밀도, 수장밀도, 나아가 전시공간의 특성, 인구규모와 같은 지역적인 상황,

사회문화, 전시의 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규모산정지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확보방안에는 문화선진국의 경우에서처럼 이들 문화예술단체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화된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문화예술을 위한 기업과 지자체의 공적·사적 지원이 적절하게 결합한 형태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한 문화적 자생력을 육성·확보해 가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국내의 중소도시 전시공간의 비교를 통하여 도출한 내용 외에도 향후 국내 전시공간의 활발한 조성 과 함께 각 도시들이 특색 있는 지역문화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 경쟁력과 문화도시의 조건을 갖추도록 제도적 방안과 운영계획도 활발히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Reference

- [1] Bahn Sangchul et al., “The Traditionality and Locality of the Collective Habitat Model in Traditional Urban Area by the Architectural Competitio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0 (Serial No. 184), pp. 35-42, Feb. 2004.
- [2] Bahn Sangchul, “A Study on Prospect-s the Growth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e of Urban Physic-al Elements”, Journal of Science & Culture, Vol. 1 No. 1, pp. 535-547, Seowon Univ. Feb. 2004.
- [3] Bahn Sangchul, “A Study on the Cond-itions and Strategies of Cultural City De-sign”, The Thesis Collection of Ho-Suh Culture, No.22, pp. 67-99, Sep. 2008.
- [4] Seo Bo-Kyung, “A Basic Study on Ty-pes of Cultural Space Formation in Downtow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4 (Serial No. 241), pp. 207-214, Nov. 2008.
- [5] Lee Bumjae, “A Study on the Location of Cultural Facilities based on Cultural Po-tentiality“, faculty research papers, No.32, Danguk Univ., 1998.
- [6] Lee Wontae et al., “A Study on Minim-um Criteria of Cultural Infra-Structure”, Journal of the Culture & Tourism Institut-e of Korea, 2004.
- [7] We Dae-bok, “A Study on Secure Lev-el Cultural Spaces based on the Medium & Small Cities”, M.A.,

- Graduate School of Seowon University, 2010.
- [8] Jeong Ji-young, “A Study on the Method of policy and Institution for Supply Regional Cultural Spaces”, The Korean Institute of Culture Architecture, No.15, 2006.
- [9] Jeong Jung-sook, “The Analysis of Cultural Competitive Power at OECD Nations”, Journal of the Culture & Tourism Institute of Korea, 2006.
- [10] Choi Jun-hyuck,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dex for Exhibition Area-s Size-computation of Museum“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1 (Serial No. 203), pp.137-146, Sep. 2005.
- [11] Takeshi Kanazawa, “The Situations of Art Exhibition in Japan”, Art Institute of Shinl University, No.7, 2001.
- [12] Kumamoto Statistical Data, 2008 .
- [13]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Architectural Data Book”, 2005.
- [14] Mungonghoi, A Yearbook of Culture and Tourism, 2005.
- [15]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Survey on Social Education”, 2005.
- [16]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Survey & Analysis on System and Management of Public Museums in Japan”, 2007.
- [1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uperintendence of Cultural Infrastructure in Korea”, 2003-2009.
- [18]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White Book of Culture Policy”, 2008.
- [19] Statistics Japan, “A Statistics of Japan”, 2008
- [20]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 Yearbook of Korean Cities”, 2008.
-

반 상 철(Sang-Chul Bahn)

[정회원]



- 1981년 2월 :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공학사)
- 1983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 2001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과 (공학박사)
- 1984년 3월 ~ 2002년 8월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 2002년 9월 ~ 현재 : 서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축계획, 도시설계, 도시공동체